

## 일부 초등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간의 상관관계

이 인 숙<sup>1\*</sup> · 김 효 신<sup>2</sup>

<sup>1</sup> 극동정보대학 간호과

<sup>2</sup> 호서대학교 간호학과

### The Relationship of Attitude and Word Recognition for the Elderl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e, Inn Sook<sup>1</sup>, Kim, Hyo Shin<sup>2</sup>

<sup>1</sup> *Department of Nursing, Keukdong College*

<sup>2</sup> *Department of Nursing, Hoseo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attitude and recognition on how to describe the elderl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thod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total 806 students of 4, 5, 6 grade at 2 elementary schools in Gyunggi-do.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for a month.

**Results:** First, the score of attitude about the elderly was 107.8 and image score was the highest.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ttitude about the elderly according to grade, birth order of siblings, domestic atmosphere, and economic status, domestic education on respect about the elderly, and education about the elderly at school.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ttitude about the elderly according to parent-grandparent relationship, health and economic status of grandparents, meeting frequency with grandparents. Fourth, the score of word recognition about the elderly was 43.3 and social score was the highest. fif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cognition on how to describe the elderly according to grade, birth order of siblings of students and parents, domestic atmosphere, and economic status, domestic education on respect about the elderly. Six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cognition on how to describe according to parent-grandparent relationship, health status and economic status of grandparents, meeting frequency with grandparents. Lastly, The attitude and recognition about the elderly show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Conclusion:** We should provide qualitative education programs to improve the attitude and recognition about the elderl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ey words : health educator, academic achievement, self-efficacy

---

(2009년 3월 30일 접수, 2009년 5월 20일 채택)

\* Corresponding author : Inn Sook Lee, Department of Nursing, Keukdong College, 38 San Danpyung-ri Gamgokmyeun Eumsung-gun Chungcheongbuk-do, Korea Tel : 82-43-879-3428 Fax : 82-43-879-3426 E-mail : ilee001@kdc.ac.kr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경로의식의 약화와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노인에 대한 존경심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특히 사회의 급격한 발달은 노인의 지식이나 지혜를 무용화하여 노인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사회 속에 스며들어 노인에 대한 대부분의 편견이나 차별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한정란, 2003; 이현미, 2005 재인용).

과거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의 핵심인 효가 사회의 중심 사상이었기 때문에 노인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으며 그 위치는 확고한 것이었다(이미정, 1996).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산성을 중요시 하는 산업사회에서 노인은 청·장년층보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활동을 비롯한 사회활동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원형희, 김동배, 이금룡, 한정란, 2002; 진남구, 2006 재인용).

이렇듯 노인의 지위가 저하되면서 노인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되었다. 특히 핵가족화로 인해 아동들은 노인을 접할 기회가 감소하여 노인을 바로 알 수 없게 되었고 기존의 노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편견은 노인을 경험하지 않은 비 노인층에게 더욱 부정적 이미지로 의식되게 되었다(오덕임, 2006). 즉, 노인은 일반적으로 아프고, 정신적으로 느리며 잘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잘 배우지 못하며 잔소리가 많고, 위축되어 있으며 스스로 안 되었다고 여기고,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으며 고립되어 있고 불행하며 비생산적이고 방어적이라고 여겨지게 된 것이다(편재희, 1999 재인용).

이와 같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젊은 세대의 노인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노인 스스로가 자신을 비하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보다 자연스러운 세대 간의 의사소통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사회 전반의 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성되도록 신세대와 구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통합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고령화 문제는 단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노인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인생의 한 여정이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노인 외에 고령화 문제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게 될 또 다른 세대는 바로 지금의 청소년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고령사회에서 청·장년층을 형성하여 고령 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원으로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책임을 지게 될 세대이기 때문이다(한정란, 2003; 곽혜원, 2005, 재인용).

그러므로 앞으로 노인세대를 부양하고 책임져야 할 지금의 청소년들이 노인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와 갈등 해소 및 향후 노인복지의 방향과 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진남구, 2006). 현재까지 이루어진 노인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 관한 연구는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었을 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상급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정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상급 학년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정도에 관해 살펴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들의 조부모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들의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에 대해 파악한다.
- 5)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의 차이를 파악한다.
- 6) 대상자들의 조부모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의 차이를 파악한다.
- 7) 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을 표현하

는 용어 인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경기도 L시에 위치한 2개 초등학교 4, 5, 6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4. 용어정의

#### 가. 노인에 대한 태도

태도란 속의 뜻이 나타나 보이는 겉모양(국어대사전, 1994)으로 본 연구에서의 노인에 대한 태도란 노인에 대한 전망과 이미지, 노인의 신체적, 지적, 성격, 사회적 특징, 노인의 가족관계에 대해 개개인이 갖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심리적 체제를 의미한다(김복순, 2006).

#### 나.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인지란 사실을 인정하여 아는 것(국어대사전, 1994)으로 본 연구에서의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란 노인인식의 한 부분으로서 노인에 대한 느낌을 표현할 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인지 태도를 의미한다(김복순, 2006).

#### 가. 노인에 대한 태도 검사지

노인에 대한 태도는 김복순(2006)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노인의 이미지, 노인의 신체적 특성, 노인의 지적 특성, 노인의 성격 특성, 노인의 사회적 특성, 노인의 가족관계 특성 등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아주 그렇다(5)', '약간 그렇다(4)', '보통이다(3)', '약간 그렇지 않다(2)', '아주 그렇지 않다(1)'의 5점 척도이며 긍정적인 문항 19개와 부정적 문항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김복순(2006)의 연구에서 .79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721$ 이었다.

#### 나.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검사지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김복순(2006)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도구를 초등학생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수정하였다. 이 척도의 내용은 신체, 심리, 사회적 영역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아주 그렇다(5)', '약간 그렇다(4)', '보통이다(3)', '약간 그렇지 않다(2)', '아주 그렇지 않다(1)'의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에 있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 .868$  이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상급 학년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에 대한 용어 인지의 정도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 및 조부모 관련 특성에 따른 이들 변수의 차이 및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단면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기간

연구대상은 경기도 L시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의 4, 5, 6학년 남녀 학생 806명이었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11월 24일에서 12월 24일까지였다.

### 3. 연구도구

### 4. 자료수집절차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저자(김복순, 2006)와 사전 연락을 취하였다. 도구를 대상자가 도구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더 쉬운 단어로 수정한 후 아동간호학 전공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였으며 이를 연구대상 학교가 아닌 타 학교에서 초등학생 5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후 대상 학교의 기관장과 보건교사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담당한 교사에게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설문지를 제공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설문지가 작성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수거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868부였으며

이 가운데 응답이 불충분하여 사용이 곤란한 62부를 제외한 806부(92.8%)를 분석하였다.

##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dow 12.0 Version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조부모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조부모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의 차이는 t-test와 One way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사용하였다. 또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산출하였고,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도구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 III. 결 과

### 1. 대상자의 특성

####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49.3%, 여학생이 50.7%였으며 학년별로는 5학년 34.5%, 6학년 34.0%, 4학년이 31.5%를 차지하였다. 형제순위는 막내가 42.1%, 맏이 37.8%, 중간 12.4%, 외동이 7.7%였다. 아버지의 형제순위는 중간 41.2%, 막내 32.0%, 맏이 23.9%, 외동이 2.9%였다. 가정의 분위기는 화목한 편인 경우가 6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 33.0%, 화목하지 않은 편 3.7%의 순이었다. 경제수준은 잘 사는 편이

31.5%, 보통 65.0%, 어려운 편이 3.5%로 나타났다. 옷 어른 공경에 대한 부모의 말씀 빈도에 대해서는 자주 듣는 편이라는 응답이 33.4%, 보통 50.7%, 별로 듣지 않는다가 15.9%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노인 관련 수업 경험에 대해서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31.9%였다(표 2).

#### 나. 대상자의 조부모 관련 특성

대상자의 조부모 관련 특성에 있어 조부모가 생존해 계신 경우가 97.4%였다.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좋은 편이라는 응답이 68.1%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 27.3%, 좋지 않은 편이다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에 대해서는 함께 살아본 적이 없다 42.1%, 과거에 함께 살았던 적이 있다 41.2%, 지금 함께 살고 있다 16.7%의 순이었다. 조부모의 건강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41.6%로 가장 높았고, 건강이 좋은 편이다 38.3%,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17.5%, 모두 돌아가셨다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경제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58.8%, 잘 사는 편이다 33.5%, 어려운 편이다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와 만나는 빈도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번 이상 만난다는 응답이 55.2%로 가장 높았고, 1년에 몇번 21.8%, 함께 살고 있다 14.6%, 거의 만나지 못한다 5.7%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

### 2.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는 150점 만점에 107.8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노인의 이미지가 23.6점, 노인의 신체적 특성이 15.7점, 노인의 지적 특

〈표 1〉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 영역별 점수

구분	문항수	mean±SD
이미지	6	23.6±3.66
신체적 특성	5	15.7±3.84
지적 특성	6	20.1±4.18
성격 특성	4	15.0±3.09
사회적 특성	5	18.1±3.66
가족관계 특성	4	15.4±3.42
노인에 대한 태도	30	107.8±16.29

성이 20.1점, 노인의 성격 특성이 15.0점, 노인의 사회적 특성이 18.1점, 노인의 가족관계 특성이 15.4점이었다. 각 하위 영역별 점수를 문항수로 나눠 평균을 비교한 결과 노인의 이미지가 3.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인의 성격 특성과 노인의 가족관계 특성이 각각 3.8점, 노인의 사회적 특성 3.6점, 노인의 지적 특성 3.4점, 노인의 신체적 특성 3.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는 학년, 형제순위, 가정 분위기,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2). 학년에 있어서는 4학년이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 6학년의 순이었으며(F=16.99, p=.000) 사후분석 결과 6학년이 4학년과 5학년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순위에 있어서는 외동, 맏이, 중간, 막내의 순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으며(F=3.13, p=.025) 사후분석 결과 맏이가 막내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분위기에 있어서는 화목한 편, 보통, 화목하지 않은 편 순서로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으며(F=38.82, p=.000) 사후분석 결과 화목한 편인 경우와 보통인 경우, 화목한 편인 경우와 화목하지 않은 경우 간에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 (N=806)

특성	구분	n(%)	mean±SD	t or F	p
성별	남	397(49.3)	106.9±17.2	-1.38	.168
	여	409(50.7)	108.6±15.3		
학년	4학년	254(31.5)	111.3±15.5b	16.99	.000
	5학년	278(34.5)	108.9±15.1b		
	6학년	274(34.0)	103.4±17.2a		
형제순위	맏이	305(37.8)	109.5±17.0a	3.13	.025
	중간	100(12.4)	107.9±16.1		
	막내	339(42.1)	105.8±15.7b		
	외동	62( 7.7)	110.0±15.3		
아버지의 형제순위	맏이	193(23.9)	109.5±16.8	1.83	.139
	중간	332(41.2)	107.8±16.1		
	막내	258(32.0)	106.2±16.2		
	외동	23( 2.9)	110.8±14.5		
가정 분위기	화목한 편	510(63.3)	111.4±15.6a	38.82	.000
	보통	266(33.0)	102.1±14.9b		
	화목하지 않은 편	30( 3.7)	97.2±19.8b		
경제수준	잘 사는 편	254(31.5)	111.8±16.6a	11.68	.000
	보통	524(65.0)	106.1±15.8b		
	어려운 편	28( 3.5)	103.9±16.8b		
웃어른 공경에 대한 부모의 말씀 빈도	자주 듣는 편	269(33.4)	111.5±16.0a	17.42	.000
	보통	409(50.7)	107.4±15.1b		
	별로 듣지 않는 편	128(15.9)	101.4±18.2c		
학교에서의 노인 관련 수업	있음	257(31.9)	109.6±14.5	2.27	.023
	없음	549(68.1)	106.9±16.9		

a, b, c : Scheffe test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

(N=806)

특성	구분	n(%)	mean±SD	t or F	p
조부모의 생존여부	살아계심	785(97.4)	107.9±16.3	1.26	.208
	돌아가심	21( 2.6)	103.4±13.8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	좋은 편	549(68.1)	111.9±14.3a	43.29	.000
	보통	220(27.3)	99.3±16.9b		
	좋지 않은 편	16( 2.0)	90.9±18.6b		
	모두 돌아가심	21( 2.6)	103.4±13.8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지금 함께 살고 있음	135(16.7)	108.4±17.2	1.74	.176
	과거에 함께 살았음	332(41.2)	108.8±15.5		
	함께 살아본 적 없음	339(42.1)	106.6±16.6		
조부모의 건강수준	건강한 편	309(38.3)	113.7±15.5a	34.07	.000
	보통	335(41.6)	106.5±15.2b		
	건강하지 못한 편	141(17.5)	98.4±15.7c		
	모두 돌아가심	21( 2.6)	103.4±13.8bc		
조부모의 경제수준	잘 사는 편	270(33.5)	111.9±16.4a	15.46	.000
	보통	474(58.8)	106.7±15.5b		
	어려운 편	41( 5.1)	95.8±17.1c		
	모두 돌아가심	21( 2.6)	103.4±13.8		
조부모와의 만남 정도	한 달에 한번 이상	445(55.2)	109.6±15.8a	4.91	.001
	1년에 몇 번	176(21.8)	106.1±16.4		
	거의 못 만남	46( 5.7)	100.1±16.6b		
	함께 살고 있음	118(14.6)	107.4±17.1		
	모두 돌아가심	21( 2.6)	103.4±13.8		

a, b, c : Scheffe test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경제수준에 있어서는 잘 사는 편, 보통, 어려운 편의 순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F=11.68$ ,  $p=.000$ ) 사후분석 결과 잘 사는 편인 경우와 보통인 경우, 잘 사는 편인 경우와 어려운 편인 경우 간에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웃어른 공경에 대한 부모의 말씀 빈도에 있어서는 웃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부모로부터 자주 듣는 편인 경우, 보통, 별로 듣지 않는 편인 경우의 순으로 노

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F=17.42$ ,  $p=.000$ ) 사후분석 결과 웃어른을 공경하라는 부모의 말씀을 자주 듣는 경우와 보통인 경우, 보통인 경우와 별로 듣지 않는 경우, 자주 듣는 경우와 별로 듣지 않는 경우 간에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에서의 노인 관련 수업 경험에 있어서는 노인에 관한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2.27$ ,  $p=.023$ ).

**4. 대상자의 조부모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조부모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는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 조부모의 건강수준, 조부모의 경제수준, 조부모와의 만남 빈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편, 보통, 좋지 않은 편 순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으며(F=43.29, p=.000) 사후분석 결과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편인 경우와 보통인 경우, 관계가 좋은 편인 경우와 좋지 않은 편인 경우 간에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부모의 건강수준에 있어서는 건강한 편, 보통, 건강하지 못한 편 순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으며(F=34.07, p=.000) 사후분석 결과 건강한 편인 경우와 보통인 경우, 보통인 경우와 건강하지 못한 편인 경우, 건강한 편인 경우와 건강하지 못한 편인 경우 간에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부모의 경제수준에 있어서는 잘 사는 편, 보통, 어려운 편 순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으며(F=15.46, p=.000) 사후분석 결과 잘 사는 편인 경우와 보통인 경우, 보통인 경우와 어려운 편인 경우, 잘 사는 편인 경우와 어려운 편인 경우 간에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부모와의 만남 빈도에 있어서는 한 달에 한번 이상, 함께 살고 있는 경우, 1년에 몇번 정도, 거의 만나지 못하는 경우 순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으며(F=4.91, p=.001) 사후분석 결과 한 달에 한번 이상 만나는 경우와 거의 만나지 못하는 경우 간에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대상자의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대상자의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는 43.3점이었으며 각 하위영역별로는 노인의 사회적 영역이 15.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인의 심리적 영역 15.1점, 노인의 신체적 영역 13.1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대상자의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의 하위영역별 점수**

구분	문항수	mean±SD
신체적 영역	4	13.1±3.07
심리적 영역	4	15.0±3.01
사회적 영역	4	15.2±2.98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12	43.3±7.69

**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는 학년, 형제순위, 아버지의 형제순위, 가정 분위기,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표 5>. 학년이 올라갈수록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가 낮았으며(F=13.49, p=.000) 사후분석 결과 6학년이 4학년에 비해, 6학년이 5학년에 비해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순위에 있어서는 외동, 중간, 맏이, 막내 순으로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가 높았으며(F=3.37, p=.018) 사후분석 결과 집 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아버지의 형제순위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맏이, 외동, 중간, 막내 순으로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가 높았으며(F=2.80, p=.039) 사후분석 결과 맏이가 막내보다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정 분위기에 있어서는 화목한 편, 보통, 화목하지 않은 편 순으로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가 높았으며(F=32.37, p=.000) 사후분석 결과 화목한 편인 경우와 보통인 경우, 보통인 경우와 화목하지 않은 편인 경우, 화목한 편인 경우와 화목하지 않은 편인 경우 간에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수준에 있어서는 잘 사는 편인 경우, 어려운 편인 경우, 보통의 순으로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가 높았으며(F=6.24, p=.002) 사후분석 결과 잘 사는 편인 경우와 보통인 경우 간에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웃어른 공경에 대한 부모의 말씀 빈도에 있어서는 부모로부터 웃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자주 듣는 편인 경우, 보통, 별로 듣지 않는 편인 경우의 순으로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가 높았으며( $F=8.09, p=.000$ ) 사후분석 결과 자주 듣는 편인 경우와 보통, 자주 듣는 편인 경우와 별로 듣지 않는 편인 경우 간에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7. 대상자의 조부모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의 차이

대상자의 조부모 관련 특성 중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 조부모의 건강수준, 조부모의 경제수준, 조부모와의 만남 정도에 따라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6).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편, 보통, 좋지 않은 편 순으로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가 높았으며( $F=28.9, p=.000$ ) 사후분석 결과 관계가 좋은 편인

〈표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의 차이 (N=806)

특성	구분	n(%)	mean±SD	t or F	p
성별	남	397(49.3)	42.5±7.9	-1.38	.168
	여	409(50.7)	44.1±7.4		
학년	4학년	254(31.5)	44.5±7.5a	13.49	.000
	5학년	278(34.5)	44.1±7.1a		
	6학년	274(34.0)	41.4±8.2b		
형제순위	말이	305(37.8)	43.7±7.3	3.37	.018
	중간	100(12.4)	44.5±8.4		
	막내	339(42.1)	42.4±7.8		
	외동	62( 7.7)	44.6±7.0		
아버지의 형제순위	말이	193(23.9)	44.6±7.9a	2.80	.039
	중간	332(41.2)	43.1±7.7		
	막내	258(32.0)	42.6±7.4b		
	외동	23( 2.9)	43.9±8.0		
가정 분위기	화목한 편	510(63.3)	44.9±7.4a	32.37	.000
	보통	266(33.0)	40.7±7.3b		
	화목하지 않은 편	30( 3.7)	39.4±8.3b		
경제수준	잘 사는 편	254(31.5)	44.7±7.7a	6.24	.002
	보통	524(65.0)	42.6±7.4b		
	어려운 편	28( 3.5)	43.8±10.7		
웃어른 공경에 대한 부모의 말씀 빈도	자주 듣는 편	269(33.4)	44.8±7.7a	8.09	.000
	보통	409(50.7)	42.7±7.5b		
	별로 듣지 않는 편	128(15.9)	42.0±7.9b		
	편				
학교에서의 노인 관련 수업	있음	257(31.9)	43.9±7.5	1.65	.099
	없음	549(68.1)	42.9±7.8		

a, b : Scheffe test



경우와 보통인 경우, 관계가 좋은 편인 경우와 좋지 않은 편인 경우 간에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부모의 건강수준이 좋은 편, 보통, 좋지 않은 편 순으로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가 높았으며(F=22.85, p=.000) 사후분석 결과 조부모의 건강이 좋은 편인 경우와 좋지 않은 편인 경우 간에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부모의 경제수준에 있어서는 잘 사는 편인 경우, 보통, 어려운 편인 경우의 순으로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가 높았으며(F=6.25, p=.000) 사후분석 결과 잘 사는 편인 경우와 어려운 편인 경우 간에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부모

와 한 달에 한번 이상 만나는 경우, 1년에 몇번 만나는 경우, 함께 사는 경우, 거의 만나지 못하는 경우의 순으로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가 높았으며(F=3.59, p=.007) 사후분석 결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8.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각각의 모든 하위영역들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표 7). 특히 노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 중 노인의 성격 특성과 노인을 표현

〈표 6〉 대상자의 조부모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의 차이 (N=806)

특성	구분	n(%)	mean±SD	t or F	p
조부모의 생존여부	살아가심	785(97.4)	43.3±7.7	.59	.559
	돌아가심	21( 2.6)	42.3±8.2		
부모와 조부모와 관계	좋은 편	549(68.1)	44.9±7.1a	28.93	.000
	보통	220(27.3)	39.9±7.7b		
	좋지 않은 편	16( 2.0)	37.1±8.6b		
	모두 돌아가심	21( 2.6)	42.3±8.2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지금 함께 살고 있음	135(16.7)	42.5±8.3	1.43	.239
	과거에 함께 살았음	332(41.2)	43.8±7.6		
	함께 살아본 적 없음	339(42.1)	43.1±7.5		
조부모의 건강수준	건강한 편	309(38.3)	45.7±7.5a	22.85	.000
	보통	335(41.6)	42.7±7.1		
	건강하지 않은 편	141(17.5)	39.6±7.8b		
	모두 돌아가심	21( 2.6)	42.3±8.2		
조부모의 경제수준	잘 사는 편	270(33.5)	44.8±7.9a	6.25	.000
	보통	474(58.8)	42.8±7.2		
	어려운 편	41( 5.1)	40.3±9.8b		
	모두 돌아가심	21( 2.6)	42.3±8.2		
조부모와의 만남 정도	한 달에 한번 이상	445(55.2)	44.1±7.4	3.59	.007
	1년에 몇 번	176(21.8)	42.8±7.9		
	거의 못 만남	46( 5.7)	40.7±8.2		
	함께 살고 있음	118(14.6)	42.2±8.0		
	모두 돌아가심	21( 2.6)	42.3±8.2		

a, b : Scheffe test

〈표 7〉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간의 상관관계

태도 / 용어인지	신체적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영역
이미지	.487(.000)	.431(.000)	.349(.000)
신체적 특성	.400(.000)	.242(.000)	.167(.000)
지적 특성	.490(.000)	.490(.000)	.411(.000)
성격 특성	.438(.000)	.510(.000)	.506(.000)
사회적 특성	.167(.000)	.460(.000)	.381(.000)
가족관계 특성	.239(.000)	.471(.000)	.411(.000)

하는 용어 인지의 하위영역 중 심리적 용어 인지 및 사회적 용어 인지 간에는 각각  $r=.510$   $r=.506$ 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IV. 고 찰

핵가족 형태가 보편적인 현대사회에서는 젊은 세대가 노인과의 동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회에서의 노인에 대한 무관심과 소외현상이 젊은 세대로 하여금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한정란 등, 2006). 특히 아동기의 고정화된 편견은 이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어 활동하는 시기에 사회 전반에 반영되어 노인을 도외시하는 사회적 기초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대 간의 단절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유문숙 등, 2007).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노인의 신체적인 면을 가장 낮게 평가한 것을 볼 때 신체적 노화에 대한 좀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측면의 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는 학년, 형제순위, 가정 분위기, 경제 수준, 웃어른 공경에 대한 부모의 말씀 빈도, 학교에서의 노인 관련 수업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우선 학년에 있어서 6학년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5학년, 4학년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추세로 변한다는 이선자(1989)의 연구와 아동기에는 노인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태도를 지니다가 청소년기를 기점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부정적으로 바뀐다는 이금룡(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아동의 발달과정 이 과거보다 조기 성숙되고 있어 초등학교 6학년은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될 수 있다(김희숙 등, 2006). 또한 4, 5학년이 6학년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이유는 아동들의 실제 태도보다는 노인에 대한 교과서적인 바람직한 태도가 반영된 데에서 연유한 결과로 사료된다.

형제순위에 있어서는 외동, 맏이, 중간, 막내의 순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맏이가 막내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순위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였는데, 고경애(1990)와 유문숙 등(2007)의 연구에서는 외동인 경우 노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는다고 하였고, 유문숙 등(2007)은 형제순위와 노인에 대한 태도와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외동이나 맏이인 경우 출생 순위상 첫째 혹은 유일한 한 명이라는 의미에서 부모의 관심을 많이 받고 성장한 만큼 아랫 순위의 자녀들보다 효에 대한 가정교육의 빈도가 높은 데에서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가정 분위기에 있어서는 가정이 화목한 편, 보통, 화목하지 않은 편 순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화목한 편인 경우와 보통인 경우, 화목한 편인 경우와 화목하지 않은 경우 간에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정 분위기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으나 어머니와 조부모 간의 의견충돌이 전혀 없다고 지각할 때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높았다는 연구(고경애, 1990) 결과를 볼 때, 고부간의 갈등이 없고 가정이 화

목할수록 초등학생이 노인을 바라보는 태도가 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경제수준에 있어서는 잘 사는 편, 보통, 어려운 편  
의 순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사후분  
석 결과 잘 사는 편인 경우와 보통인 경우, 잘 사는  
편인 경우와 어려운 편인 경우 간에 노인에 대한 태  
도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경제수준  
이 높을수록 노인 인식이 긍정적이었다는 김영숙  
(2002)과 박경란(1994)의 연구결과와 사회경제적 지  
위가 높은 가정의 아동이 낮은 가정의 아동보다 노인  
에 대한 인식과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해 더욱 긍정적  
으로 인식한다는 김혜경(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고 하겠다. 또한 어머니가 조부모에게 경제적 지원  
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일수록 노인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한다고 생  
각하여 노인을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장  
윤옥(2002)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고 하겠다. 생활  
의 근간이 되는 경제적 여건이 좋아서 노인들이 자신  
의 삶을 풍요롭게 영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들을 바라보는 손자녀의 노인에 대한 태도  
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 생각된다.

웃어른을 공경하라는 부모의 말씀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웃어른 공경에 대한 말씀을 부모로부터  
자주 듣는 편인 경우, 보통, 별로 듣지 않는 편인 경우  
의 순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사후분  
석 결과 웃어른을 공경하라는 부모의 말씀을 자주 듣  
는 경우와 보통인 경우, 보통인 경우와 별로 듣지 않  
는 경우, 자주 듣는 경우와 별로 듣지 않은 경우 간에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가정교육이 엄격한 집안에서 자란 아동이 노인  
의 가족관계, 심리적, 경제적 측면에 대하여 긍정적으  
로 인식한다는 고경애(199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가정 내의 부모교육이 노인에 대한 자녀의 태도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  
라서 어린 시절부터 학업제일주의로 치닫는 현재의  
역기능적인 가정교육에서 벗어나 웃어른과 타인을 배  
려하고 인간다운 성품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는 가정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학교에서의 노인 관련 수업 경험에 있어서는 노인  
에 관한 수업을 들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

해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관련 교육을 받은 정도가 높을  
수록 노인문제 해결 태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는 임승희(199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노인 관련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정  
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아동들을 위한 노인 관련 교  
육 프로그램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배운대로 행할 수 있는 즉, 학습의 결과로 행  
동의 변화가 가능한 학동기 아동들에 대한 노인 관련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고령사회에서 인간  
이 인간을 배려할 줄 아는 가치있는 덕목의 실천이라  
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대상자의 조부모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  
도 점수는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 조부모의 건강수  
준, 조부모의 경제수준, 조부모와의 만남 빈도, 웃어  
른 공경에 대한 부모의 말씀 빈도, 학교에서의 노인  
관련 수업 경험 여부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  
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부모와 조부모와  
의 관계에 있어서는 관계가 좋은 편, 보통, 좋지 않은  
편의 순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사후  
분석 결과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편인 경우  
와 보통인 경우, 관계가 좋은 편인 경우와 좋지 않은  
편인 경우 간에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이는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의 질이 손자  
녀가 지각하는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의 질에 영향  
을 받는다고 한 백문화(1991)의 연구결과와 관련이  
있으며 조부모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긍정적일 때 손  
자녀가 조부모와의 관계를 보다 친밀하게 인식한다는  
박의순(1990)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부모  
들은 자녀들의 모든 언행이 자신이 자녀를 양육하면  
서 보여주었던 태도와 행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  
하여 평소 좀더 모범적인 태도와 행동을 가정생활 속  
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있는 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좀더 긍정적으로  
다져지게 되고 이들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효의  
정신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부모님의 건강수준이 건강한 편, 보  
통, 건강하지 못한 편 순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 점  
수가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건강한 편인 경우와 보

통인 경우, 보통인 경우와 건강하지 못한 편인 경우, 건강한 편인 경우와 건강하지 못한 편인 경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 모두 건강하고 젊은 조부모와 더욱 만족스런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김혜경(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이는 조부모가 건강할 때 손자녀와 더욱 강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조부모님의 경제수준에 있어서는 잘 사는 편, 보통, 어려운 편의 순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잘 사는 편인 경우와 보통인 경우, 보통인 경우와 어려운 편인 경우, 잘 사는 편인 경우와 어려운 편인 경우 간에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조부모가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을수록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던 이선자(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조부모가 용돈을 자주 주는 경우일수록 노인이 깨끗하고, 친절하고, 재미있으며, 노인을 존경하고 있다는 등의 긍정적인 대답을 했었던 신미정(1990)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고 하겠다. 경제적인 능력이 많을수록 조부모의 입장에서 손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질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손자녀는 조부모와의 잦은 접촉을 원하게 될 것이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조부모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조부모와의 만남 빈도에 있어서는 한 달에 한번 이상, 함께 살고 있는 경우, 1년에 몇 번 정도, 거의 만나지 못하는 경우의 순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한 달에 한번 이상 만나는 경우와 거의 만나지 못하는 경우 간에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조부모와 정기적으로 접촉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노인을 호의적으로 판단하고 노인을 더 좋아한다는 연구결과(Resencranz 와 McNevin, 1969)와 노인과의 접촉경험이 세대 간의 정서적 친근감을 증가시켜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는 연구(Barton, 1999; Caspi, 1984 ; Knapp, 1993)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전화횟수가 많은 경우 전화횟수가 적을 때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던 연구(유영숙, 2007) 결과와도 유사하다. 또 노인과의 근접경험이 있을 때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던 연

구(김효신, 1994; 원영희 등, 2002) 결과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노인과의 접촉이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결과도 있다. Schwartz와 Simmons(2001)는 젊은 세대와 병약한 노인과의 비자발적 접촉은 젊은 세대가 노인을 비호의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고 하였으며, Seefeldt(1989) 역시 양로원에 거주하는 노인과 접촉한 아동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노인과의 단순한 접촉보다는 질적인 접촉이 중요하다고 본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는 학년, 형제순위, 아버지의 형제순위, 가정 분위기, 경제수준, 웃어른 공경에 대한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가 낮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6학년이 4학년에 비해, 6학년이 5학년에 비해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에 관한 논문이 거의 없어서 비교하기 곤란하나 학년이 높아지면서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유영숙(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형제순위에 있어 외동, 중간, 맏이, 막내의 순으로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아버지의 형제순위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맏이, 외동, 중간, 막내의 순으로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고경애, 1990; 유영숙, 2007)에서 외동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정적이었던 결과와 마찬가지로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에 있어서도 노인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아버지가 맏이인 경우 자녀의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이었던 것은 전통적으로 맏이가 집안의 기둥이며 부모님을 봉양하고 부모님께 효를 행할 의무가 있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아버지의 부모님 공경 태도에 영향을 받아 자녀들도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에 있어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사

료된다.

가정 분위기에 있어서는 화목한 편, 보통, 화목하지 않은 편 순으로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가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화목한 편인 경우와 보통인 경우, 보통인 경우와 화목하지 않은 편인 경우, 화목한 편인 경우와 화목하지 않은 편인 경우 간에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정 분위기가 화목할 경우 노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나 가정 내에 불화가 발생하여 노인 부양에 대한 갈등이 표출되면 손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조부모는 자신의 부모에게 부담만 제공하는 짐스러운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경제수준에 있어서는 잘 사는 편인 경우, 어려운 편인 경우, 보통의 순으로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가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잘 사는 편인 경우와 보통인 경우 간에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손자녀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조부모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조부모님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세대는 노후대책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도 없었고 노후생활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도 마련되지 않았던 시대를 살아온 분들이다. 모든 가치를 금전적으로 계산하고 부를 미덕으로 여기는 현재의 잘못된 사회풍조를 일소시키기는 어려우나 부모들은 조부모들이 어떠한 시대를 살아왔으며 현재의 우리나라를 위해 그 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에 대해 자녀들에게 들려줌으로써 경제적 수준에 따라 노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잘못된 시각을 교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웃어른 공경에 대한 부모님의 말씀 빈도에 있어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웃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자주 듣는 편인 경우, 보통, 별로 듣지 않는 편인 경우 순으로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가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자주 듣는 편인 경우와 보통, 자주 듣는 편인 경우와 별로 듣지 않는 편인 경우 간에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평소 가정교육이 노인을 바라보는 자녀의 태도에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

하는지를 시사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부모님과 조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편, 보통, 좋지 않은 편 순으로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가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관계가 좋은 편인 경우와 보통인 경우, 관계가 좋은 편인 경우와 좋지 않은 편인 경우 간에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김연수(1993)의 연구결과와 부모가 조부모를 좋아한다고 지각한 아동이 부모가 조부모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지각하는 아동보다 노인을 좀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 연구(서정기, 1993; 정미실, 1996)결과와도 어느정도 일치하고 있다.

조부모의 건강수준이 좋은 편, 보통, 좋지 않은 편 순으로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가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조부모의 건강이 좋은 편인 경우와 좋지 않은 편인 경우 간에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조부모의 건강이 보통 이상일 때 조부모의 건강이 나쁜 집단보다 조부모와의 친밀도를 높이 지각하였다는 김연수(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조부모기 건강할 때 건강이 좋지 않을 때보다 더욱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조부모가 잘 사는 편인 경우, 보통, 어려운 편인 경우 순으로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가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잘 사는 편인 경우와 어려운 편인 경우 간에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부모의 경제적 능력은 자녀나 손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물질적 규모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등학교 아동들의 시각에서 볼 때 조부모의 경제력은 가정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과 많은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노인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부모와 한 달에 한번 이상 만나는 경우, 함께 사는 경우, 1년에 몇번 만나는 경우, 거의 만나지 못하는 경우 순으로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점수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노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의 정도가 노인에 대한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선자, 1989; 차용은, 1980; Carstensen, Mason & Cardwell, 1982; Hartshorne & Manaster, 1982)과 유사한데, 이 연구들은 건강하고 친밀한 노인과의 접촉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한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노인인식의 측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 상급 학년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는 매우 유사한 범주 내에 있으나 본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를 함께 살펴본 이유는 노인에 대한 인식 정도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두 변수 간에 밀접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때, 가정 내에서 부모들의 노인에 관한 표현,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 제시되는 노인의 외양, 심리 및 성격 묘사 과정에 있어서 좀더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노인에 대한 문제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젊은이들이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을 확대하고 병든 노인을 유기하며 노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보고도 있다(김동석, 2003; 여미옥, 2002). 노인에 대한 태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나 노인관련 수업 경험이 있고, 노인과의 접촉이 있을 때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본 연구결과를 볼 때, 노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및 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 4, 5, 6학년 남녀 학생 806명으로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8년 11월 24일에서 12월 24일까지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

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107.8점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노인의 이미지가 23.6점으로 가장 높았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학년, 형제순위, 가정 분위기, 경제수준, 웃어른 공경에 대한 부모님의 말씀 빈도, 학교에서의 노인 관련 수업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3) 대상자의 조부모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는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 조부모의 건강수준과 경제수준, 조부모와의 만남 빈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4) 대상자의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는 43.3점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노인의 사회적 영역이 15.2점으로 가장 높았다.
-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는 학년, 형제순위, 아버지의 형제순위, 가정 분위기, 경제수준, 웃어른 공경에 대한 부모의 말씀 빈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6) 대상자의 조부모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는 부모와 조부모와의 관계, 조부모의 건강수준과 경제수준, 조부모와의 만남 빈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7)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을 표현하는 용어 인지 간의 관계는 모든 하위영역들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길 제언한다.

## 참고문헌

- 고경애 (1990). 한국 청소년의 노인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0-84p, 서울.
- 곽혜원 (2005). 청소년이 지각하는 노인의 이미지에

-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 대전.
- 국어대사전 (1994). 1303, 1627. 서울 : 민중서원.
- 김복순 (2006). 초등학생 노인인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0-64, 서울. .
- 김동석 (2003).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7-42, 서울.
- 김연수 (1993). 부모-조부모 관계와 손자녀-조부모 친밀도가 청소년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사실 인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1-58, 서울.
- 김영숙 (2002). 중고등학생의 노인이미지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1(3), 75-89.
- 김혜경 (1997).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세대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65-79.
- 김효신 (1994). 간호전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717-725.
- 김희숙, 강경아, 김순애, 김신정, 김현실, 김현옥, 문선영, 양은영, 이명숙, 정혜경 (2006). 아동건강 간호학. 350. 서울 : 군자출판사.
- 남광우, 이응백, 이을환 (1994). 국어대사전. 1303, 서울 : 민중서원.
- 박경란 (1994). 부모-조부모 관계의 질이 청소년기 손자녀-친조부모간의 유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지, 14(2), 74-89.
- 박희순 (1990).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와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2-58, 서울.
- 백문화 (1991).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1-60, 서울.
- 서정기 (1993). 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관계와 노인에 대한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1-55, 서울.
- 신미정 (1990). 아동기 손자녀가 지각한 조부모 이미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1, 서울.
- 여미옥 (2002).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지역비교 중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5-60, 서울.
- 오덕임 (2006). 동화 속에 나타난 노인의 이미지.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 서산.
- 유문숙, 손연정, 김용순 (2007). 초등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1(1), 54-63.
- 유영숙 (2007). 노인존중에 대한 행동과 태도 - 대전 시내 초·중·고 대학생을 중심으로 - 대전대학교 경영행정 · 사회복지대학원. 35-50, 대전.
- 원영희, 김동배, 이금룡, 한정란 (200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중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지, 22(2), 131-146.
- 이금룡 (2004). 연령별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를 통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전략적 방안 모색. 노인복지연구, 26, 143-164.
- 이미정 (1996).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 부산.
- 이선자 (1989). 연령단계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8-32, 서울.
- 이현미 (2005).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서울.
- 임승희 (1999). 중고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 및 노인문제 해결 태도 연구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5-47, 제주.
- 장윤옥 (2002).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조부모 부양행동과 조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청소년의 노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지, 22(1), 191-207.
- 정미실 (1996). 아동·부모·조부모 특성에 따른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6-37, 서울.
- 진남구 (2006). 지역별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4, 서산.
- 차용은 (1980). 노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전주대학교 논문집, 제9호, 12-23.

- 편재희 (1999). 농촌 청소년이 지각하는 노인 이미지.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 청원.
- 한정란 (2003).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노년학회지, 23(4), 181-194.
- 한정란, 이금봉, 원영희 (2006). 청소년과 노년 세대 간 태도분석 : 상호지향성 및 중요도-실행도 분석모형을 기초로. 한국노년학회지, 26(2), 381-402.
- Barton, H. (1999). Effects of an intergenerational program on the attitudes of emotionally disturbed youth toward the elderly. *Educ Gerontol*, 25(3), 623-640.
- Caspi, A. (1984). Contact hypothesis and inter-age attitudes : A field study of cross age contact. *Soc Psychol Q*, 46(1), 74-80.
- Carstensen, L., Mason, S. E., & Cardwell, E. C. (1982).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 an intergenerational techniques for a change. *Educ Gerontol*, 8, 292-301.
- Hartshorne, T. S., & Manaster, J. M. (1982). The relationship with grandparents : contact, importance, role conception, *Int J Aging Hum Dev*, 15(3), 233-245.
- Knapp, J. L. (1993). Changing student's perception of aging. *Educ Gerontol*, 26(7), 611-621.
- Resencranz, H. A., McNevin, T. E. (1969). A factor of attitudes toward the aged. *Gerontologist*, 9(1), 55-99.
- Schwartz, M. A., & Simmons, J. P. (2001). Contact quality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Educ Gerontol*, 2(2), 127-137.
- Seefeldt, C., & Ahn, U. R. (1988). Korean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Int J Comp Sociol*, 29, 3-4, 264-268.